

# [무역의 날 54돌] 3억불 수출탑 / 에코플라스틱

매출 절반 해외서...3년내 수출 4억弗 목표

강두순, 이재철, 이동인, 문지웅, 황순민, 강영운 기자    입력 : 2017.12.05 04:08:03

자동차 부품 회사인 에코플라스틱은 연구개발을 통한 경영혁신으로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1984년 6월 1일 설립된 회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에 범퍼 및 콘솔 등 플라스틱 사출 및 도장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코플라스틱은 경주에 본사를 두고 아산·광주 공장 등을 가동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현대차, 기아차 등)를 통한 내수 판매와 로컬 수출 및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한 직수출 판매로 매출액 실적 중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김영석 대표

간접 수출 실적은 매년 소폭 증가 추세로 지난해 3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회사는 2020년까지 수출목표를 4억달러로 세웠다. 4공장 신설, 생산설비 확장, 생산성 향상으로 2020년 총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수출시장 개척과 신규 먹거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회사는 북미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북미 법인 영업본부에서는 해외 유명 모터쇼(프랑스 파리 모터쇼, 미국 모터쇼 등)와 국내외 플라스틱 고무 박람회(유럽, 중국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일본 미쓰비시에 신규 아이템 납품이 이뤄지면서 유럽, 일본 등 매출액 확대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연구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회사는 엔지니어링 능력 제고, 공장 자동화 및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경량화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성형사출 공장과 연간 60만대의 도장 능력을 자랑하는 전자동 도장 공장을 보유 가동 중이다. 회사는 지난해 6월 4공장을 신설 완성차 대차 충돌시험을 가능하게 하여 품질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고객 이외에도 신제품을 납품해 핵심 미래 성장동력인 차량 경량화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강두순 기자 / 이재철 기자 / 이동인 기자 / 문지웅 기자 /

황순민 기자 /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